



제03호 / '16.5.3(화)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2,050원 인상!
취업규칙 개악 저지!
노동자 건강권 쟁취!
일반해고 금지!
조합활동시간 보장!

□발행처: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노사 모두 성원 부족으로 3차 교섭 결렬!

3차 교섭 중 2차례나 교섭 결렬

4월 28일 3차 지부교섭이 또 결렬됐다. 1차 교섭이 사측의 무단 불참으로 무산되고 벌써 두 번째다. 한국JCC가 사업장 체육대회 관계로 노사 모두 참여하지 못하면서 교섭이 결렬되고 말았다.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과 사업장별 개악안으로 임단협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교섭위원 불참으로 교섭이 결렬되는 상황까지 벌어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기 교섭이 어린이날 관계로 2주 뒤에 개최될 예정이라 더욱 교섭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모링크는 임원급 교섭위원으로 교체

지난 교섭에서 코스모링크 사측 교섭위원이 부장급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지부는 교섭위원은 임원급이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이기도 하고, 교섭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책임있는 임원급이 참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코스모링크 사측은 부장급이어도 공장장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책임있게 교섭이 참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원급 교섭위원으로 교체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 보충교섭을 통해 조합원 뿐만 아니라 금속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을 개선시켜왔다. 그만큼 임단협 교섭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섭의 중요성과 책임을 고려해서 그동안 임원급 교섭위원들이 참가했다. 교섭에 참가한 교

섭위원들은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섭에 임했다. 올해도 책임있고 성실한 교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후에 더 성실한 교섭이 필요하다

4월 7일 시작한 교섭이 한달이 다 되도록 1차례 밖에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차기 교섭일인 목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5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때부터는 성실하고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사 양측도 교섭성원 부족으로 교섭이 결렬되는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모든 조합원들의 눈이 올해 임단협으로 쏠리고 있다. 교섭위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이 결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차기 교섭은 5월 12일(목) 15시 대한이연에서 열린다.

3차 교섭 속기록

코스모링크 임원급 교섭위원으로 교체

노 : 코스모링크 부장급 교섭위원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데 임원 중 이사가 참석한다고 들었다.

사 : 앞으로 교섭하는데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나오겠다. 경험이 많이 없지만 배우기도 하겠다.

노 : 사측 교섭위원 명단 수정을 해야겠다. 근데 한운시스템도 간사만 나오셨다. 간사 외 한 분 더 나오지 않으셨나?

사 :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간사 겸 교섭위원이라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 : 작년에는 부사장 외에도 다른 분도 함께 나왔던 걸로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우리도 확인해보겠다. 코스모링크 새로운 교섭위원 소개 해달라.

사 : 코스모링크 김종화 전무이사다. 예전에 노조와 함께 해본 경험은 있는데 수년 전이다. 성실히 말씀 듣고 하겠다.

노 : 오늘 JCC가 사업장 행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참석하는 걸로 알았는데 못오셨다. 교섭성원이 안되는 상황이라 교섭치수로만 인정하고 교섭위원 확정하고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자.

사 : 코스모링크 교섭위원만 확인하고 정리하자.

노 : 교섭은 성사가 안됐고 인사는 듣자.

사 : 오늘 전체적으로 일정상 문제가 있었다. 먼길 오신 분들 회사 방문에 감사드린다. 그동안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2016년에도 잘 마무리되면 좋겠다. 편안히 돌아가시면 고맙겠다.

노 : 저희도 참석못한 지회가 있어 실수가 있는 것 같다. 요구안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빠진 회사가 있어 설명을 하는게 맞진 않을 것 같다. 차기에 다 참석하면 설명하겠다. 차기 교섭만 정하고 마무리하자. 다음 주는 어린이

날이라 안될 것 같고, 5월 12일 목요일 15시 대한이연에서 하는 건 어떨까?

사 : 그렇게 하자.

사회 : 금일 교섭 마치겠다. 차기 교섭은 5/12(목) 15시 대한이연에서 진행하겠다.